

“차향과 이순신 정신 만남” 보성차박람회 개막

24-26일 보성읍 열선루 일원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통합

각테일 쇼·차 품평회 등 다채

보성군이 '보성차'와 '이순신 역사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연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4-26일 보성을 열선루 일원에서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통합해 진행되며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알리고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 차문화 웰니스 축제로 꾸며진다.

보성세계차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번 박람회는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보성차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재해석해 전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순신의 정신과 차문화 철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보성차산업 미래 발전 티 포럼'이 보성읍사무소에서 열린다.

국내 차(茶)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차산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열선루 특설무대에서는 '보성티 각테일 쇼'가 열려 보성차를 활용한 각테일 퍼포먼스와 시음 회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 밖에도 ▲AI와 함께하는 보성티 블렌딩 라운지 ▲말차격발체험 ▲이순신 장군차 전시 및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 행사장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보성티 각테일 등을 시음하며 보성차의 향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시음 ▲보성차 행운의 톨렛 이벤트 ▲보성티 감성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한 전국 차인들이 참여하는 '제13회 보성 세



담양군은 지난 18일 5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황리 개최

500여명 참여...공연·체험·전시 열기

담양군은 21일 “지난 18일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5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내 청소년동아리의 공연과 전시,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푸드트럭·포토존·환경 재활용 체험·희망 캡슐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처럼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주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릴레이로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에는 ‘제4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참여기업 평균 진도율 70% 달성

대신영농조합 러시아 수출 협약 등

곡성군이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의 중간 점검을 마친 결과, 다수의 참여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전남도의 지원으로 곡성군이 예산을 매칭해 추진 중이며, 멜론·토란·가루쌀 등 지역 특산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연고기업의 기술혁신, 브랜드 경쟁력,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올해 선정된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브랜드·디자인 개발 ▲판로 개선 ▲해외 비즈니스 연계 ▲시험·인증 지원 등 세부 사업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 기업이 목표 대비 평균 70% 이상 진척률을 보였으며 일부는 사업이 조기 완료될 만큼 빠른 성과를 보였다.



대표 성과로 대신영농조합법인인 러시아 헤외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해 3만5천 달러(약 4천9759만원) 규모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러시아 연해주한인회 주관 ‘K-MARKET’ 행사에서 멜론 시식회를 진행해 준비 물량을 전량 판매했다.

현재 러시아 유통업체와 납품 협의를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가시비서농원은 새 박스 디자인을 적용

한 배 선물세트를 출시해 추석 기간 높은 호응을 얻었고, 할리버리는 허브티 레시피 특허 출원과 주요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해 판로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남은 기간 수혜기업 워크숍과 최종 평가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춘양분소 30일 개소

내달 3일 운영...31종·58대 비치

화순군은 “오는 30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11월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고가의 농업기계 구매 부담을 덜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서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춘양분소는 40여원을 투입, 8천35㎡ 부지에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수리 공간, 직원 휴게실·세탁실과 더불어 농업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실(수용 30명)과 심상장(면적 2천㎡)을 조성했다.

현재 임대용 농업기계 31종·58대(관리기

등)가 비치돼 있으며, 앞으로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에 다수의 농업기계가 비치될 수 있도록 임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춘양분소 개소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함께 균형 있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시, 전 시민에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시비 580억 투입...지급 시기 논의

순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상황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정부의 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이 어려웠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시장은 여수MBC의 순천 이전과 코스트코 유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 초청 등 순천시의 미래 성장 전략도 함께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 출산친화 가족사진 공모 당선작 전시

군청 로비·보건소 한달 간...18점 전시

고흥군은 21일 “제7회 출산친화 가족사진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를 보건소와 군청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6가정이 72점을 응모했다.

전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당선된 최종

18점이다. 손주들과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랑스런 손주들과 함께’ 최우수상 1점, 팔영산을 배경으로 한 ‘팔영산이 품은 능가사에서 우리’ 등 우수상 3점과 장려상 14점이다. 해당 작품들은 보건소를 시작으로 고흥군청 로비까지 약 한달간 전시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장흥무산김(주) ‘BRCGS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 획득

ASC·MSC 이어 국내 유일 ‘이중 인증’

지역 수산식품기업 장흥무산김(주)이 영국 인증기관 LRQA로부터 ‘BRCGS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인증은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식품안전 관리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중 하나다.

이번 인증으로 장흥무산김은 제품의 위생관리, 품질보증, 위해요소 통제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국내 김 제조업체 중 BRCG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외국계 기업과 장흥무산김(주) 단 두 곳뿐이다.

이 가운데 BRCGS와 ASC·MSC 해조류 국제유기 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장흥무산김(주)이 유일하다.



장흥무산김은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김 생산기업으로 위상을 확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미국·중동 등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와 진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획득한 것은 지역 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장흥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